

[박물관의 도시]

송화강랑목박물관서 천년의 조화가 빚어낸 기이함을 만나다

—길림시 송화강랑목박물관 정식 개관



송화강랑목박물관 일각

최근, 천년 송화강의 세월과 4대에 걸친 장인의 혼이 깃든 문화의 전당—송화강랑목(浪木) 박물관이 길림시에서 정식 문을 열었다.

송화강랑목박물관은 길림시 세계관광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개관은 '길림 4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랑목예술이 단순한 자연유산을 넘어 체계적인 보호와 살아숨쉬는 전승이라는 역사적 도약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울퉁불퉁한 질

감과 기이묘묘한 형태의 랑목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긴 시간과 강물, 그리고 장인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준다. 박물관은 '통식교육'(通识教育)을 기반으로 자연의 기원에 이르는 시대적 발전에 이르는 완결된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랑목이 형성되는 과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문헌과 실물 자료를 통해 송화강 류역 거란, 녀진, 만주 등 민족의 '자연을 교묘히 활용하는' 삶의 지혜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수집하는 창고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살아있는 '문화교실'이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7분은 자연의 솜씨, 3분은 사람의 손길'이라는 동양의 '천인합일' 철학을 이해하고 하늘이 내린 선물이 사람의 손길을 거쳐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랑목예술의 전승과 보호는 길림시가 추진하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물관에는 호영전, 랑해산 등 대표적인 전승인들이 어떻게 옛 법도를 지키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고대의 기법에 현대적 생명력을 불어넣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관동지역의 풍격을 담아낸 대형 장식물부터 현대적 미감이 융합된 생활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500여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이 예술 장르가 걸어온 려정과 시대적 숨결을 빠짐없이 보여준다.

랑목은 송화강만이 품고 있는 고유 자연유산으로 그 시작은 장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비롯되었다. 삼림 속의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들이 산사태로 인해 강물에 떠내려온 뒤 오랜 세월 얼음과 물살, 모래와 자갈에 시달리며 수천년에 걸쳐 서서히 '나무가 돌로 변화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밟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랑목은 이미 천나라 문헌에도 "특성이 쇠나 돌보다 더욱 단단하다."고 기록되고 전해질 만큼 견고하다.

송화강랑목박물관의 개관은 길림시가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한걸음으로 평가된다.

송화강랑목박물관은 방문객들이 송화강이 품은 생태적 서사를 읽고 관동대지가 간직한 역사적 기억과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온기를 느끼는 공간이 될 것이다. 나아가 백산송수에서 비롯된 이 독특한 선물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고 중국과 세계가 소통하는 문화적 교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영국기자

중화추사오리 귀환, 화전시 생태보호 성과 입증



서식지에서 노니는 중화추사오리

봄날 해살이 따스하게 강물을 비추고 생명체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요즘, 화전시 홍석림업유한회사 관할 송화강 류역에 월동을 마치고 돌아온 첫진의 중화추사오리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들의 참대굴'이라 불리는 이 귀한 새들은 푸른 강물 위로 날아오르며 홍석림구의 봄 풍경에 생동감 넘치는 생태적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홍석수력발전소에서 백산수력발전소로 이르는 잔잔한 회수(回水) 구역에서 중화추사오리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맑은 강 속에 잠수해 먹이를 찾거나 날개를 활짝 펴고 깃털을 고르는 등 유유자적 노니는 모습이 송화강 기슭의 독특한 생태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국가 1급 중점 보호 야생동물인 중화추사오리는 수질과 서식지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수역 생태환경의 질을 가능케 하는 '생태시험지'라 불린다. 이들이 레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바로 홍석림구의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생물다양성이 꾸준히 풍부해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생태 수호 성과는 명확한 수치가 뒤받침하고 있다. 2025년 가을 수조류(水鳥) 조사 결과 홍석림구의 중화추사오리 개체수는 50마리를 돌파했고 단일 관측 최대 기록은 17마리로 2024년 봄철 대비 20% 증가했다. 또한 사업일군들은 처음으로 3개의 가족군이 동시에 활동하는 흔적을 관측했는데 이는 중화추사오리의 중요한 번식지로서 홍석림구의 핵심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정밀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 국보급 종을 잘 보호하기 위해 홍석림업유한회사는 사전 포치, 여러 조치 병행으로 보호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다. 현지에서는 '야외 영상 감축 + 현장 답사 + 드론 촬영'을 결합한 합체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체군 동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과학적 보호를 위해 상세한 수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천연나무 구멍둥지(天然樹洞巢穴)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강변을 따라 둥지가 있는 나무(巢樹)에 대한 조사 및 표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향후 인공둥지를 추가 설치하여 번식 과정에서 겪는 '주거난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립장제 사업 착각과 긴밀히 결부해 서식지 순찰 및 관리통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변지역의 인위적 간섭을 엄격히 통제하여 중화추사오리에 안전한 서식 및 번식 환경을 조성해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관련 수치는 <홍석림구 수조류 서식지 보호 계획(2026년—2030년)> 편찬에 관건적인 근거를 제공해 현지의 생태안전 장벽을 가일층 확고히 하고 생태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의 협동공진을 추진함으로써 홍석림구의 특수청산을 잘 수호하는 데 조력하게 된다.

/ 길림일보

반석시

봄철 환경위생 일선... 기계 투입으로 효율 제고



기계로 청소하는 장면

봄기운이 대지를 감싸면서 빙설이 녹아내리는 가운데 반석시의 봄철 환경위생 집중 정비 작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반석시는 기계화 작업을 주력으로 겨우내 쌓인 쓰레기와 잔설, 각종 오물을 효율적으로 청소함으로써 도시환경을 맑고하게 일신시켰다.

반석시환경위생관리중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6년에 새로 도입된 도로 청소 차량 9대가 모두 현장에 투입되어 위생환경 기계화 작업 수준과 청소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다. 정비 기간 동안 제설차 12대가 여러 간선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펼치고 5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까지 협력하여 총 430만립방미터가 넘는 면적의 적설을 치우고 1,840톤 넘는 적설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등 청소 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정비는 시내 주요, 차요 간선도로, 도농 결합 지역 및 '7대 번두리(七边)' 중점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대형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가 투입되어 인력 청소와 상호 보완을 이루면서 락업, 잡초 등을 정밀하게 제거했다. 동시에 쓰레기 수거 운반 회수를 늘리고 생활쓰레기는 당일의 것을 당일 모두 처리했으며 휴지통, 공공화장실 등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기계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 공공위생 안전 방어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반석시환경위생관리중심은 이번 집중 정비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기계화 작업을 상시화, 정밀화 관리 체계에 융합시키고 장기적인 정결 유지와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이 봄을 맞아 일신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길림일보

서란, 흰게사니산업 발전에 박차... 10대 조치 발표

최근 서란시는 <2026년 흰게사니 산업 건전한 발전 인도 10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규모 안정화, 품질 제고, 공급망 강화, 수익 증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배치를 통해 사육주체에 비용, 위험, 수익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제공하며 흰게사니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치는 사육주체의 애로점을 정확히 짚어 종란 부화, 사육, 방역, 도축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병약한 새끼게사니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질병 예방 및 정례화된 지도 기제를 구축하여 생존률을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의 최저선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위험 보장 측면에서는 '5위일체' 모델을 통해 새끼게사니 공급, 표준 사료, 정규 수의약품, 주문형 수매 및 금융 지원을 통합하여 사육, 도축, 판매의 협동 연계를 촉진한다.

중간 단계를 줄여 농가가 게사니 사육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

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품질 제고를 위해 조치는 생태 사육 시설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장려하고 놓이 수조, 분뇨 처리 시설 등을 보완하며 초지 사육(草飼) 게사니, 장기 사육 게사니 및 특수 품종을 발전시킨다.

또한 도축 기업이 량질의 상품 게사니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여 '우수 품질—우대 가격'의 선도를 형성함으로써 단일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브랜드 및 종자원 측면에서는 조치

를 통해 종자게사니 번식 및 신품종 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서란 흰게사니'가 고급화, 브랜드화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조합을 통해 서란시는 금융 토대, 보험 후위, 주문 보장 및 브랜드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기르며 잘 팔 수 있는' 발전 환경 조성에 주력해 광범위한 사육 농가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투자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 길림일보

황송전진, 작은 목이버섯으로 큰 산업 일구다

현재, 교하시 황송전진의 집집마다에서는 특별한 봄농사가 한창이다. 바로 목이버섯 배양배지(菌包)에 구멍을 내는 작업이 전면 진행중이다. 구멍 내는 기계가 배양배지에 고르게 구멍을 내고 촌민들은 목이버섯 새싹이

배양배지를 뚫고 나올 날만을 기다린다. 식용균 재배는 황송전진의 새로운 '전'경이다.

황송전진 진보촌 촌민 수육전의 집창고에는 수만개의 목이버섯 배양배지가 가지런히 쌓여있다. 여기서 누구

는 배양배지를 구멍 내는 기계에 올리고 누구는 구멍 내기 작업이 끝난 배양배지를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놓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 번영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다. 황송전진의 목이버섯, 령지버섯 등

주요 식용균 품종 재배는 그 규모가 안정적이다. 2025년, 목이버섯과 령지버섯 재배량은 각각 2억 1,000만포, 360만단(段)에 달했다. 수육전처럼 식용균을 재배하는 농가는 황송전진 전체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농가당 년평균 소득이 5만원을 넘는다.

올해 황송전진에서는 '황송전 목이버섯' 국가 지리표식 증명 상표를 바탕으로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균종 연구개발, 균포 가공, 표준화 재배, 시장 판매, 정밀가공에 이르는 전체 산업사슬 발전 모식을 형성했다.

'작은 목이버섯'은 이제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총투자가 약 1억 3,000만원, 총부지면적이 5.6헥타르에 달하는 황송전진 특색식용균 산업물류단지(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올해 7월말 준공 예정이다.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당지의 식용균산업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의 핵심고리를 뚫어 산업 브랜드 영향력과 시장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길림일보



황송전진 목이버섯재배단지